

# “사회정화는 인간의 향기에서..”

맑고 향기롭게 모임·BBS 특별기획

## 법정스님과의 만남 ②

### 주제: 맑고 향기로운 사회

—대담: 공종원 <연론인>—

히 세속적인 논치나 보는 것으로 빠져들게 마련입니다. 물론 이런 스님들은 소수이고 많은 스님들이 정진하고 포교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공종원: 사회적으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불교와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법정: 가장 환경의 혜택을 받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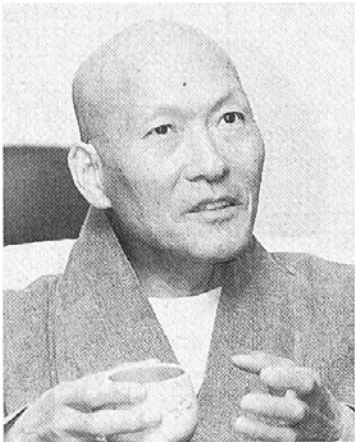
고급품만을 시주하게 되면 스님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급화되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낭비이고 과소비를 부추키는 것이지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다 밧이지요. 이런 생각이 옛날에는 철저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공종원: 맑고 향기롭게 운동이 가장 불교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마음수양에서 대사회적인

적인 양심으로 선택해야지 종교적인 편견이나 지역적인 감정을 가지고 선택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공종원: 사회윤리 가정윤리가 우리사회에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올해는 청소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법정: 청소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청소년의 문제가 심각하게 됐다는 것은 가정 자체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즉 번듯한 가정은 있어도 대화의 창구인 따뜻한 가정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청소년들이 걸든다는 것은 따뜻한 가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문제



법정 스님



공종원 씨

## 이웃에 따뜻한 사랑 나누는 자비심이 '부처님' "과다한 정보는 인간을 정보노예로 만들어"

런 상황이 계속되면 인간과 정보의 상관계를 잃게 되고 정보의 노예가 되 지않겠느냐는 우려도 하게됩니다.

▲공종원: 정보홍수속에서 살다보니, 자연 불교도 대사회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데 스님들 가운데 자기 수행이나 깨달음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입장보다는 사회참여에 인력을 세운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스님의 기본적인 자세와 결부될 수 있는지는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계도하고 이끌어야 할 종교가 사회의 눈치를 본다면 종교 본래기능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로 때때로 자신의 위치에서 제물을 다 할 때 건강 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출가정신이 결여될 때 자연

는 곳이 사찰입니다. 하지만 환경문제에 통합하고 있는 곳도 사찰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적인 예로 큰 절근처의 개울에 이끼가 없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세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지요.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도 합부로 버리고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옛 수도승들이 이런 모습을 본다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우리가 생산자가 아니고 시주자로부터 얻어다 쓰는 현행인데 합부로 버리고 낭비한다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덕성은 물론 가장 아끼고 맑게 간직해야 할 심성까지도 버리는 꼴이 됩니다.

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에 갈 때 가장 좋은 물건만 공양물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꼭 필요한 것만 시주하라는 것입니다.

대인간관계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불교정신에 가장 맞고 불교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들이나 시민단체에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 불교는 나쁜일 하지 말고 좋은 일을 많이 해 마음을 깨끗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맑은 삶을 이루면 향기는 저절로 풍겨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꽃의 향기가 맑은속에서 풍겨나오듯이, 우리들이 인간다운 삶을 산다면 인간의 향기는 저절로 나와 사회를 향기롭게 정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맑고 향기롭게 운동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특히 전국 각 사찰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사회는 더욱 맑고 향기롭게 될 것입니다.

가 있어도 이것을 쏟아놓을 상대가 없다는 뜻이지요. 청소년들이 미래의 우리 자신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불교내에서도 청소년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공종원: 올해는 특히 더 큰 인력을 세워 좋은 활동을 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법정: '부처님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한마디로 자비심이라고 말합니다. 즉 자비심이 곧 부처님이요, 우리가 부처님이 된다고 할 때 견성이나 성불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웃에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곧 부처님'이라고 늘 생각하십시오.

정리=김종근 기자

만 화

# 법구경

\* 더러움의 장\*

더러움을 씻고 죄에서 벗어나면 천상의 성지로 올라가리라



이 향 원

스님 빨래감 더 없나요? / 힘드신데 그것만 주세요 / 힘들긴요 이 정도는 운동이죠 / 이렇게 도와 주시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 별말씀을... 매일 못 도와 드려 송구스러 운걸요

아! 참 / 왜 그러시죠? 보살님 / 꼭 가 봐야 할 곳이 있는데 깜박했네요 / 그럼 어떡해요? / 빨리 끝내고 가면 됩니다 / 잊일은 제게 맡기고 가 보십시오

아-하고... 한 숫갈 남았다 / 우리 수갈이 정말 잘 먹는구나 / 여보 멀었어? / 다행이요

저녁상까지 다 물렸는데 이들은... / 막내라고 "오냐오냐" 하며 키워서 이 모양이 지요 / 저희가 갖고온 아버님 생신 선물입니다 / 우리 금시계로 했어요 / 저편 아무래도 보약이 좋을 것 같아서... / 험험험 고맙구나

아버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 이제 / 네 꼴 보니 또 자원 봉산가 뭔가 하고 오는 모양이구나 / 일주일 두 번 나가는데 오늘이 단칸방 신세를 못 면하지 / 야! 이놈아 니 알기랍이나 잘 하지

자원봉사가 돈을 벌어서 주나 / 밥을 먹여주나 이 바보 먹통 같은 놈아 / 그따위로 사니까 단칸방 신세를 못 면하지 / 만약 유산을 남기고 그따위로 산다면 난 한푼도 물려주지 않아

험한 세상 살자면 한탄이라도 약처럼 챙겨야지 / 그대는 이제 시든 낙엽 / 염라왕의 사자도 그대 곁에 와 있다 / 그대는 죽음의 길목에 서 있다 / 그런데 그대에게는 노자마저 없구나 / 그러므로 자신의 의지할 때를 만들라 부처님께 증진하여 지혜로워 지거라 더러움을 씻고 죄에서 벗어나면 천상의 성지로 올라가리라

민음과 수행과 깨달음으로 가는 길

## 일타큰스님께서 피내신 알기 쉬운 불교책!

“불보살의 가피! 누구나 입을 수 있습니다.”

신국판 / 5,000원

# 祈禱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사람의 환경생 중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란 지극히 적다. 그러나 살다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꼭 이루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절을 다닌 신도들조차도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거나 방법이 잘못되어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총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이야기 !!

이에 일타큰스님은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불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자비길을 알 수 있게 된다.

I. 나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II.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 III. 업병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 IV. 목숨을 구한 일념의 기도 / V.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VI. 기도인을 바른 길로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범망경보살계

참된 자유와 깨어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는 대자비 법문

제1~5권 / 신국판 / 각권 320면 내외 / 각권 6,000원

《범망경보살계》는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인 일타큰스님께서 수십년 동안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무애법(無礙辯)을 기록·편집한 책이다. 5부의 대작(大作)으로 보살계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한 장광설(長廣說)의 대자비 법문이다.

이미 보살계를 받으신 분, 대승불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 본래의 마음자리로 되돌아가 참된 깨달음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십시오. 무명의 업장이 견고하고 한없는 공덕이 생겨날 것입니다.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신국판 4,500원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자는 엄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큰스님 자신과 가족·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엮은 책. 이 책을 읽다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공경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범공양문 신국판 / 각 5,000원

일타큰스님께서 불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처님 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감로법문 테이프 5개 1세트 / 각 10,000원

듣는 것 만으로도 깨달음의 세계에 접어들고 환희심이 일어나는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불자들의 입문서 <초발심자경문> 세권의 해설서, 드디어 완간!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시작하는 마음

조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을 일타큰스님의 자성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이 엮은 책으로, 누구나 어렵지 않게 깊고 넓은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게 될 것이다. 각 5,000원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 강설집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영원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영원과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은?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알기 쉽게 해설한 이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줄 것이다. 각 5,000원

아운미구의 <지경문> 강설집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아운미구의 <지경문>을 일타큰스님이 직접한 이야기들 곁들여 조목조목 해설했다. 불사의 신심과 인력을 복돋우고 지혜를 길러주는 신행의 나침반이 될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부디 돌아보고 또 명심하여 마음자리 부처를 회복하고 행복이 담백 담긴 자재로운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각 5,000원